

K-인터뷰(Interview): <신지혜의 영화음악> 소사(小史) (1)

K-Interview: A Brief of History of Shin Ji-hye's Movie music(1)

신지혜*

1. <신지혜의 영화음악>¹의 특징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CBS-FM에서 1998년 2월 2일 시작되어 2023년 10월 31일까지 방송된 영화음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수 프로그램, 동시간대 청취율 1위라는 점 외에 다른 음악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데 1인 제작 시스템으로 기획되어 방송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 구성인원의 차이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PD가 있고 방송내용을 대본으로 작성하는 작가가 있으며 직접 마이크 앞에 앉아서 진행을 하는 진행자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일단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진 1> 신지혜 아나운서의 모습

* 신지혜는 1994년 4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CBS의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26년간 <신지혜의 영화음악>을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진행했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ice-cold@hanmail.net

1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CBS-FM에서 1998년 2월 2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방송된 영화음악 프로그램이다.

사실 본 프로그램 이전에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제작, 진행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각 방송사의 지역국이나 극동방송에서는 PD나 아나운서가 1인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왔지만 그런 점을 감안 하더라도 보편적이지는 않은 시스템인 것이다.

그렇다면 본 프로그램은 어떻게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시작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후 1인 제작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CBS의 음악 프로그램 (특히 CBS JOY4U²의 경우) 중 다수의 프로그램이 1인 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신지혜의 영화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올드 미디어인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라디오를 사라져가는 미디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미디어로만 인식한다면 수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지혜의 영화음악>의 소사를 짚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기존의 미디어와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는 뉴미디어가 등장한 지 꽤 되었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이용자들의 필수매체가 되었다. 이와 함께 라디오를 비롯한 올드 미디어 (또는 레저시 미디어로 불리는)를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추이가 감소했고 감소하고 있다.³

더구나 최근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로 지칭되는 MZ세대는 이전의 세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다는 것과 미디어에게 긴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서만 생각해 보아도 젊은 층이 새롭게 라디오를 비롯한 올드 미디어로 유입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에 대한 관심은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2021년 말 개최된 ‘라디오 지속가능성과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는 라디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필모 의원은 ‘라디오는 다양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매체’라고 말하면서 라디오의 생존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⁴

2 전파가 아닌 인터넷망을 이용한 라디오 서비스.

3 이재철. (2022년 1월 20일). 매일경제.

4 장세인. (2021년 12월 30일). PD저널.

이는 라디오의 영향력이 줄고 청취층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라디오는 아직 살아 있고 라디오의 기능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의 반증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수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중 하나일 뿐인 <신지혜의 영화음악>의 가치와 의미가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2. <신지혜의 영화음악>의 시작

CBS는 1954년 12월 15일 개국 되었고 1995년 말 음악 FM 채널을 시작했다. 이전에는 AM 채널 (후에 표준 FM 채널이 된다)만 가지고 있었고 뉴스,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심으로 방송을 했는데 음악 FM 채널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음악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클래식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가요, 팝, CCM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는데 지금의 데일리 프로그램으로서의 영화음악은 없었다. 대신 일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시네마천국>이라는 이름으로 방송된 주말 프로그램으로서의 영화음악 프로그램이 있었다. 평일과 토요일 이 시간대에는 젊은 청취자를 타겟으로 한 <우리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고 일요일만 떼어서 영화음악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다.

영화음악 프로그램 <시네마천국>은 당시 <우리들>을 제작하던 김형준 PD와 강경미 작가 그리고 신지혜 아나운서 (후에 <신지혜의 영화음악>을 제작, 진행)가 진행을 맡았고 1부는 PD의 선곡과 일주일간 모인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졌고 2부는 영화감독을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로 운영되었다. 당시 배창호, 이명세, 강제규, 김의석, 정병각, 유상욱 감독등이 출연해 자신의 작품 뿐 아니라 영화사에서 중요하게 꼽히는 명작들에 대한 소개로 인기를 끌었다.

방송사는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개편을 한다. CBS의 경우 예전처럼 크게 기초를 바꾸지 않고 소폭 개편을 한지 오래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청취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기도 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빼기도 하고 진행자와 피디를 교체하기도 한다.

1996년 가을 개편 때 주말 프로그램이었던 <시네마천국>이 빠지면서 영화음악 프로그램이 주간 편성이 된다. 그것도 오전 11시. 이전까지만 해도 방송사를 막론하고 영화음악 프로그램은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편성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영화 <서편제>로 잘 알려진 배우 오정해씨가 영화음악의 진행을 맡게 되면서 매일 오전 11시 <오정해의 영화음악>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진행하던 오정해씨는 결혼과 출산으로 진행을 내려놓게 되고 후임으로 배우 추상미씨가 2대 영화음악 DJ를 맡게 된다. 하지만 추상미씨는 영화 <퇴마록>과 드라마 촬영 등이 겹치면서 라디오 진행까지 할 수 없게 되고 몇 개월 안 되어 하차한다.

그렇게 해서 1998년 2월 2일, <시네마 천국>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 이후 <FM 매거진⁵>에서 매주 새 영화를 소개하던 신지혜 아나운서가 3대 DJ를 맡게 된다. 당시는 <추상미의 영화음악>을 연출하던 김수정 PD와 작가가 있었고 한 달 후 1998년 3월 2일 봄 개편 때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당시 <신지혜의 영화음악> 뿐 아니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던 <뮤직 네트워크>도 김형준 PD (<우리들>을 연출했던)가 1인 제작을 맡게 되면서 두 프로그램이 파일럿으로 시험대에 오른다.

3. 지향점과 타겟 오디언스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처음부터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로서 훈련을 받고 아침 종합뉴스, 저녁 종합뉴스 앵커를 오랜 기간 맡아 오며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던 신지혜 아나운서는 3월 2일 개편 때 1인 제작으로 영화음악을 맡게 될 것이라는 당시 부장의 업무명령을 받고 한 문장으로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결정했다.

이미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영화 애호가이며 영화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했던 신지혜 아나운서는 “좋은 영화음악을 널리 알려 같이 듣자”는 기준을 설정했다.

한 영화의 ost 앨범 중에서도 잘 알려진 곡 외에도 좋은 곡들이 많은데 귀에 익은 곡과 적절하게 배치해서 영화음악 청취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좋은 곡은 완성도가 높은 곡, 영화를 보고 난 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곡, 영화 속에서 역할과 기능을 한 곡 등이 포함되었다.

타겟 오디언스는 당연히 ‘영화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가요나 팝은 유행하는 곡 스타일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대에 따라 선호하는 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5 CBS 음악 FM 초창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프로그램. 지금의 <그대와 여는 아침>의 전신.

영화음악은 그렇지 않다. 클래식이나 월드뮤직 같이 선호도가 선명하게 나뉘지도 않는다.

문턱이 높지는 않지만 웬지 영화음악은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영화의 장면이나 영화의 분위기를 함께 설명하면서 그 문턱을 낮추면서도 오리지널 스코어를 적극적으로 소개한 것이 본 프로그램의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기준을 잡고 그에 맞는 코너를 만들고 선곡을 하고 원고를 작성했다.

4. 초기 방송 환경

본 프로그램이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당시 시대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1998년은 IMF 사태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였기 때문이다.

1998년 3월 봄 개편, <신지혜의 영화음악>이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신지혜 아나운서는 PD와 DJ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다. 작가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모든 원고를 직접 작성하고 영화 홍보사와 함께 청취자 시사회를 개최하고 직접 시사회 참석자를 추천하고 전화 연락을 하고 시사회권을 편지봉투에 넣어 일일이 부치고 CD 등의 청취자 선물을 직접 포장해서 발송하는 업무까지 혼자 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오프닝은 2023년 10월 31일 마지막 방송일까지 쓰게 되었고 직접 작성하던 매일의 코너 원고는 작가가 들어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나누어 작성했다.

<신지혜의 영화음악> 초기는 방송환경이 지금과 사뭇 달랐다.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망이 상용화되기 전이라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유니텔 4군데에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사연을 받아 방송 전에 미리 사연을 출력했고 생방송 중 청취자 사연은 음악 FM 주조정실에 비치된 두 대의 팩스로 받았다.

당시 시그널 음악과 CM 등은 작은 릴테이프에 녹음해 두고 사용했고 프로그램을 녹음할 경우에는 한 시간짜리 큰 릴 테이프에 녹음을 했다. 그렇게 녹음을 하고 난 뒤 CM이 급하게 들어오면 테이프를 잘라 붙여 편집을 하던 때였다.

1인 제작으로 제작, 진행을 하면서 청취자의 신청곡도 받아야 하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팩스를 모아 체크를 하고 선곡을 하고 CD를 걸어 놓고 주조 바로 앞에 있는 음반자료실로 뛰어가 CD를 가져와서 방송을 했다. 미리 선곡한 오프닝 곡과 코너에 사용할 CD는 미리 뽑아 놓지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신청곡은 무슨 곡이 신청될지 모르고 당시는 CD로 음원을 송출했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A4 용지에 자주 들어오는 신청곡을 리스트 업해 놓고 음반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이 리스트가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수많은 영화음악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거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LP를 거는 턴테이블도 부스 안에 있었다. 후에 (2000년대 초쯤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LP로만 방송하는 것을 특질로 삼아 LP만 음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5. 방송환경과 기기의 변화

1990년대 말, 인터넷망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하이텔 등이 사라지고 www로 시작하는 도메인이 상용화되었다. 방송 장비도 때맞춰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CBS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들여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CBS의 방송 제작 및 송출 프로그램은 'CROS'인데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에 2년 정도 과도기에 잠깐 사용된 MD가 있다. 릴 테이프의 시대가 가고 CD 음원을 오디오파일로 바꾸고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얇고 네모난 mini disc를 사용했다. 주말이나 휴일 프로그램을 녹음할 경우 이제는 릴 테이프를 걸고 녹음 후에 들어온 CM을 편집하느라 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어졌다. MD는 녹음도 편하고 편집도 용이해서 좋았으나 안정성이 떨어지고 내구성 또한 떨어져서 글자 그대로 임시방편으로 과도기에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나름 2003년까지 사용한 기억이 있다.

그리고 드디어 'CROS' 시스템이 완성되고 디지털화된 음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사진 2〉 신지혜의 영화음악 20주년 기념 사진

를 설치하고 음원 (음악도 CM도)을 카트에 끌어다 놓고 페더만 올리면 된다. 녹음도 편하고 CM 편집도 이전과 다른 방식이다.

편의성과 편리성이 있으나 아무래도 초기에는 불안정성이 높아서 오류가 나곤 했다. 대비책으로 프로그램 시그널과 CM을 CD에 녹음해 놓고 음악 CD 두어장과 함께 비상용으로 늘 비치해 두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바로 방송사고로 이어지곤 했다. 인간이 개입할 틈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엔지니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되기에 이른다.

이즈음 방송사 엔지니어의 역할도 변화되었다. 전통적으로 방송사 엔지니어는 주조의 넓은 콘솔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며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이었다. 콘솔은 아무나 만져서도 안되고 엔지니어들은 정말 콘솔을 소중하게 다루었다.

하지만 방송기기가 디지털화되면서 (그리고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생방까지 직접 콘솔을 만지는 사람이 생기면서) 엔지니어들은 보다 본질적인 업무를 하게 되었다. 시스템 개발과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엔지니어들 덕분에 방송사는 드디어 고유의 디지털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